

■ 2026년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도 국제협업지원(창·제작)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단·다년) : 2025년 11월 20일(목)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다년) : 2025년 11월 25일(화) 9:30~13: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2층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성주, 김혜라, 노은영, 서명구, 손택수, 이나리메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공모 국제협업지원(창·제작) 사업은 국제적 수준의 프로젝트 및 작품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신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해외 파트너와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상호 대화의 장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문화예술의 지평을 한껏 드넓히고 저마다의 예술의 장들이 지닌 상상력의 교차와 제3의 예술적 가능성까지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협업지원사업에는 총 280건이 접수되었으며, 행정결격 5건을 제외한 275건에 대해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회의는 각 장르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르통합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수행역량 40%(신청주체 사업수행역량 25%, 해외파트너 사업수행역량 15%),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사업계획의 타당성 10%, 사업계획의 구체성 20%, 예산편성의 합리성 10%),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 및 확장 20%(지속가능성 10%, 국제교류 생태계 발전 10%)의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원서 검토 및 심의위원들간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는 심의과정 숙지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심의위원들의 지업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 검토 의견 작성 및 사전 채점이 밀도 있게 선행되었습니다. 이후 1차 대면 서류심의 회의에서는 개별 지원서에 대한 의견 교환과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며,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10분 발표 및 15분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위원들과 사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늘어난 지원 건수에 비해, 개별 사업의 고유한 특징이나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국제교류 지원사업 신청을 목적으로 급히 작성된 계획으로 보이거나, 해외에서의 전시나 공연 투어에 초점을 맞추어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들, 단순한 기획의 나열을 국제교류의 핵심으로 인식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의 과정보다 결과 중심에 초점을 맞춘 경우, 협업 파트너의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지원신청 한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한 신뢰를 표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경우, 그리고 단년이 아닌 다년 트랙이어야 하는 필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의 지원서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기준을 근거로 수행역량과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충실히 갖춘 지원서가 자연스럽게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제교류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갖춘 지원서들에 대해서는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장르별 특성과

최근 국제교류 협업 방식의 흐름, 폭등한 환율 등을 감안하여 지원적정액을 논의하였습니다.

심사는 저마다의 장르를 횡단하는 여행 가운데 서로 다른 종들의 미의식을 공유하며 저마다의 차이를 생산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전 지구적 통증과 AI를 화두로 한 다채로운 기획들 그리고 사회·역사적 국면에서 누락 되거나 명명 너머로 밀려난 타자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이슈를 비추는 시도와 실천들은 그 자체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창적 국제교류 모델로서 해외 교류의 피상성과 관성을 넘어 지속적인 협업의 가치를 옳게 제시한 선정 사업들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국제교류의 당위성과 확장성을 간단없이 증명해주는 실물적 지표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예술의 난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사의 고비고비마다 시대의 궁핍이 예술의 깃대를 꺾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적 토대가 궁핍수록 각고의 궁리들이 벽을 넘는 담쟁이넝쿨의 눈부신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업은 현격하게 축소된 예산 지형의 한계를 어떻게 현장의 열기들과 원활하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보다 다양한 지원들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뒤로, 현 단계 국제교류 지원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살핌을 통해 새로운 모색과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심의위원 일동